

# 해외문학수용 새지평 연 스페인어권문학

## 소장학자들의 원전번역 활기... 독특한 작품세계로 관심 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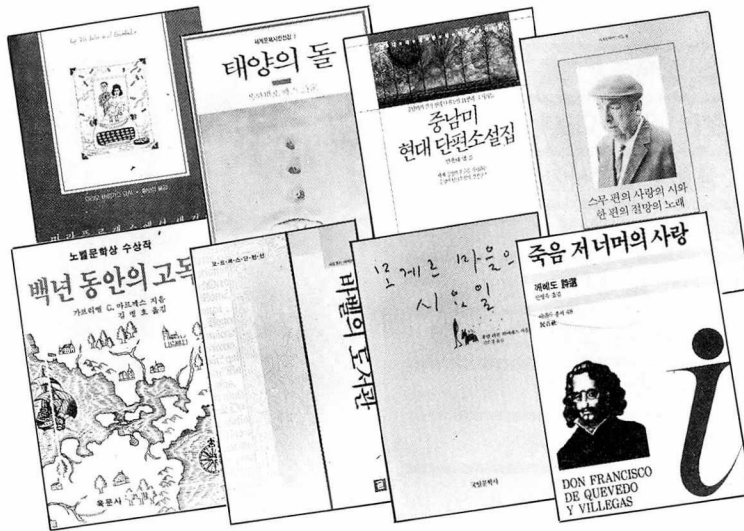
스페인어권 문학의 번역 출간이 최근 들어 부쩍 활기를 띠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 소개된 해외문학은 미국과 유럽에 지나치게 편중돼, 다양한 문화권의 작품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 80년대 중반 이후 고조되기 시작한 제3세계권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일부 스페인어권 작품이 소개되기도 했으나, 이 역시 그들 문학의 전체 지형도를 가늠하는 데 별반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최근 출간되고 있는 작품들은 지명도 높은 현대작가뿐 아니라 비중있는 고전작가에게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어, '문혀진 황금'으로 일컬어지는 스페인어권 문학의 본격적인 소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들은 중역이 아닌 세심한 각주와 해설을 곁들인 원전번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 마르케스 선풍 계기로 관심 고조

1천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스페인어권 문학은 중주국인 스페인을 비롯해 중남미 전역에 걸친 거대한 문화권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인 만큼, 세계문학사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변방문학'으로 밀려나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했던 것은 오히려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등 문화적 요인에 기인한 바 컸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스페인어권 문학으로는 아무래도 「돈끼호테」를 꼽아야 할 것이다. 50년대 이후 간행된 각종 세계문학전집류를 통해 대표적인 스페인어권 문학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이 작품은 초기에는 문학성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그 유명세만 회자되다 차츰 타인, 세계와의 관계에서 늘상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실체를 상징한 작품으로 중요시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돈끼호테」 이외에는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스페인어권 문학의 목록은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나마 세계문학전집의 구색맞추기의 일환으로 끼어 있던 몇몇 작품마저 전집류의 퇴조와 함께 단행본에 밀려 묻혀버리고 만 것.

그러다가 마르케스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국내에도 그의 세계적인 선풍이 불기 시작해 수상작인 「백년동안의 고독」(문학사상사, 육문사)이 베스트셀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좀처럼 접해볼 수 없었던 독특한 작품세계



‘문혀진 황금’으로 일컬어지는 스페인어권 문학의 본격 상륙을 예고하는 작품들.

로 선풍을 일으킨 그의 작품은 「죽장의 가을」(청하)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았다」(민음사) 「백년동안의 사랑」(도서출판 동아) 「미로속의 장로」(청계) 그리고 최근의 「인질」(학민사)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거의 전작품이 번역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미술적 리얼리즘'이라 명명된 그의 작품들은 남미 고유의 신화나 전설과 이 지역 특유의 현대 정치사를 혼합시킨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 신선함과 충격을 던져줬다.

마르케스의 등장이 너무 선풍적이어서 넓은 의미에서의 스페인어권 문학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다는 한 작가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이 강했다면, 86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지학사의 '오늘의 세계문학' 시리즈는 비로소 이 지역 문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는 통로를 터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제3세계 작품들을 모아 엮은 이 시리즈를 통해 스페인어권 중요 문학상 수상작들인 「영웅의 무덤에서」(에르네스토 사바도, 아르헨티나) 「광야의 집」(호세 도노소, 칠레) 「아르메미오의 최후」(카를로스 푸엔페즈, 멕시코) 「녹색의 집」(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페루) 「마음의 전쟁」(조르지 아마도, 브라질) 「최없는 성자들」(미겔 델리베스, 스페인) 등 적잖은 작품이 소개됐다. 전 작품이 장편소설이라는 점이 특징인데 라틴아메리카의 굴곡 많은 현대사를 배경으로 건강하고도 낙천적인 민중의식을 방대한 스케일 속에 담고 있어 이들의 역사와 민족성,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적격이다.

스페인어권 문학에 있어 시가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다. 역시 노벨상 수상자인 옥파

비오 빠스와 빠블로 네루다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편. 옥타비오 빠스의 시는 지난 86년 시집 「태양의 돌」(청하)과 시와 산문을 모은 「옥파 비오 빠스」(민음사) 「고독한 미로」(신원) 등이 노벨상 수상 직후 선보인 한편, 비슷한 시기에 빠블로 네루다의 시선집 「마추빠추의 산정」(열음사) 「스무편의 사랑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민음사)가 출간된 바 있다.

### 고정독자층 형성하며 원전번역 활기

주로 스페인문학을 전공한 소장학자들에 의해 선보이고 있는 최근의 작품들은 몇몇 유명 작가에 집중됐던 이전의 작가목록에서 탈피,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 남미의 지성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문학에서도 뛰어난 성취를 이룬 보르헤스를 비롯해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을 작품의 원천으로 삼아 강렬한 토속성을 보여주는 로르카와 히메네스, 스페인문학사에서 '황금세기'로 불리는 17세기 바로크문학의 대표적 시인 케베도, 마르케스와 함께 남미 현대소설의 기수로 평가받는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와 마누엘 피그 등이 바로 주인공들.

동서양 사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방대한 지적 세계를 새로운 형식에 담은 난해한 '실험소설'로 흔히 '언어의 미로'로 불리는 보르헤스의 작품은 그동안 번역의 어려움으로 실제 작품이 아닌 '보르헤스론'만 무성했던 것이 사실. 단순한 번역만으론 이해가 불가능한 그의 작품의 특성상 전문적인 각주와 해설은 필수적이라는 게 중론인데, 최근 출간된 「허구들」(박병규 옮김, 녹진)과 「바벨의 도서관」(김춘진 옮김, 글)은 어렵게 번역된 보르헤스 문학의

정수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끈다.

공교롭게도 '안달루시아'라는 문학적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로르카와 히메네스는 그러나, 그 작품세계에 있어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로르카는 「집시민요집」(김현창 옮김, 청하)을 통해 안달루시아 지방의 집시들을 주인공으로 당시 스페인의 억압적 사회구조를 상징적으로 고발하는 민중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반면, 히메네스는 「프라테로와 나」(한태희 옮김, 말과글) 「모게르 마을의 시요일」(김은정 옮김, 국일문학사)을 통해 섬세하게 묘사된 안달루시아의 자연풍광에 자신의 내면세계를 투영시킨 낭만주의적 색채를 드러내보인다. 한편 선집형태로만 소개됐던 네루다의 작품 중 초기시세계를 대표하는 「스무편의 사랑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추원훈 옮김, 청하)가 전면 완역돼 관심을 모으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 나아가 제3세계가 처한 정치적·사회적 현실을 첨예하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요사의 「미라플로레스에서 생긴 일」(황보석 옮김, 사민서각)과 피그의 「거미여인의 키스」(가람기획, 이동수 옮김)는 현재까지 소개된 라틴아메리카 작가들 중 가장 젊은 세대에 속하는 작가들로, 강한 정치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소설로 각광을 받고 있다.

17세기 스페인의 국력쇠퇴에 따른 비참하고 고통스런 현실에 대한 환멸과 실망에서 탄생된 케베도의 시선집 「죽음 저 너머의 사랑」(안영옥 옮김, 민음사)은 현대문학 일색이었던 그간의 스페인어권 문학 번역에서 모처럼 대하는 고전으로 이채를 띤다. 이와 함께 중남미 현대문학의 황금기였던 1960년대 단편소설들을 모은 「중남미 현대 단편소설집」(민용태 엮음, 문학사상사)은 보르헤스, 요사는 물론 오네티(브라질), 몰포(멕시코), 베네데티(우루과이), 곤잘레스(푸에르토리코), 까르벤티에르(쿠바) 등 중남미 11개국의 대표작가 대표작이 골고루 소개돼 있어 그들 나름으로 일궈온 독특한 문학적 향취를 맛볼 수 있다.

국내 해외문학수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최근의 스페인어권 문학생은 두텁지는 않지만 고정독자층을 차츰 넓혀가면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공자들의 의욕적인 번역작업도 한몫을 하고 있어 그 전망은 더욱 밝다.

— 정소연 기자